

어린 왕자와 실존주의

송태효 어린왕자 인문학당 대표

생텍스, 실존주의의 선각자

1953년 창간된 프랑스 시사 잡지 『렉스프레스(L'Express)』가 『어린 왕자』 예찬자로 보도한 하이데거는 생텍스의 마지막 작품이 된 이 시적인 철학 동화에 매료되어 있었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애독서를 궁금해 하는 프랑스 기자에게 서가에서 『어린 왕자』 꺼내며 20세기에 쓰인 위대한 실존주의 저술 가운데 한 권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지식인 사르트르와는 달리 진솔한 체험의 작가 생텍스의 어린 왕자와 여우 이야기에 푹 빠져든 하이데거는 1949년 판 독일어본 『어린 왕자』 뒷표지에 다음과 같이 발문을 남겼다.

『어린 왕자』는 어린이를 위한 책이 아니다. 『어린 왕자』는 모든 고독을 달래주고, 세상의 장엄한 신비를 이해하게끔 인도하는 위대한 시인의 메시지이다.

프랑스 실존주의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생텍스는 인간이기에 고독할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을 깨닫고 관계 맺음으로서의 우정과 직업, 그 수단으로서의 도구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소설들을 써왔다. 이러한 생각이 하이데거로 하여금 『어린 왕자』를 20세기의 위대한 실존주의 저술 가운데 한 권으로 평가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사르트르 또한 생텍스가 전통적 사유와 문학에 세뇌되지 않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관계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었다.

생텍쥐페리? 그는 하나의 전통이나 문화로부터 주입된 것이 아닌, 인적 교류로부터 특별하게 나온 그 명증성의 돌연함과 인간에 대한 비전으로 인해 실존주의자이다.

— 미셸 크넬(Michel Quesnel), 『생텍쥐페리 혹은 시의 진실(Saint-Exupéry ou la vérité de la poésie)』, Plon, 1964, 23p.

생텍스는 시인도 아니고 전업 작가도 아니었다. 그는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겪는 체험을 통해 동료들과의 인간관계와 낯선 존재에 대한 책임을 우의적인 이미지들로 전하며 자신의 실존적 사유를 드러낸다. 특히 낯선 존재와 책임의 관계는 생텍스 작품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주제로서 『어린 왕자』 이전의 작품에도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땅(Terre des Hommes)』(1939)의 경우가 그렇다. 프랑스 실존주의가 탄생하기 이전의 작품인 『사람들의 땅』은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사의 죽음과 대면한 절대 고독 그리고 낯선 베두인 족에 의해 구조된 순간 느끼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다루고 있어 『어린 왕자』의 전편으로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사르트르는 이 작품을 실존주의의 기원으로 평가하였

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당시 대부분의 선배 작가들 심지어 초현실주의 작가들마저도 일촉즉발의 긴박한 현실의 갈등을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생텍스의 경우는 달랐다. 평화 문학에 전념해오다 전쟁이라는 물리적 현실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선배 작가들과는 대조적으로 생텍스는 애초부터 유럽이 전쟁 상태였음을 인식하고 전쟁 문학이라는 거대한 공적을 이루었다는 것이다.¹⁾ 사르트르는 그가 선배 작가들의 주관주의와 정적주의에 대항하여, ‘직업과 도구’의 문학의 위대한 특성을 묘사한 생텍스를 소비 문학을 대신하는 건설 문학의 선구자로서, ‘전쟁과 건설, 영웅주의와 직업, 행동, 소유의 존재, 인간 조건’이 현대 문학과 철학의 기본 주제임을 보여준 선각자로 자리매김하였다.²⁾

어린 왕자의 실존적 선택

관계 맺음에 근거한 실존철학은 『어린 왕자』에서 매우 현실적으로 대중에게 다가 간다. 스스로 선택한 행위 속에서 본질이 이루어져 감을 독자에게 일깨우는 어린 왕자와 어른들, 어린 왕자와 여우와 뱀, 어린 왕자와 비행사의 대화는 아무런 배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린 왕자』에는 어린 왕자 출생의 기원, 가족 관계, 성장 배경에 관한 서술이 하나도 없다. 주인공 비행사의 노력으로 밝혀지는 어린 왕자의 배경 지식은 이 우화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비행사가 어린 왕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서로 우정을 나누는 관계로 진전하며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 것이다. 생텍스는 『어린 왕자』의 전편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땅』(1939)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하나의 직업이 지닌 위대함이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하나로 맺어 주는 것이리라. 사치스러움 가운데 딱 하나 진실한 것도 있으니, 그 진실된 사치란 바로 인간관계라는 사치이다. —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사람들의 땅(Terre des Hommes)』, 『Œuvres complètes』 I, 갈리마르, 1999, 189p.

수년 후 카뮈는 『시지프 신화』에서 거의 동어반복에 가까운 표현을 통해 인간관계로서의 우애와 우정의 의미를 강조하게 된다. 더구나 카뮈의 문장은 “‘정신’이 점토에 숨결을 불어넣는다면, 오로지 그러한 정신만이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땅』의 마지막 구절의 주석 같은 인상을 떨칠 수 없게 한다.

영웅들에게는 딱 하나의 사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라는 사치이다. 이 나약한 세계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 그리고 그저 인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모든 것이 더욱 강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어찌 이해하지 못할까? 경직된 얼굴들, 위협받는 우애, 사람들 사이로 존재하는 그토록 강렬하고 경건한 우정, 이런 것들이야말로 곧 사라져가는 것이기에 진정한 부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 한 복판에서 정신은 그 힘과 한계를 느낀

1) 왕무(Wang Mu), 「『어린 왕자』 속 실존주의 사상들(Les Pensées Existentialistes dans Le Petit Prince)」, Canadian Social Science, Vol. 8, No. 6, 2012, 233p.
2) 장 폴 사르트르, 「1947년의 작가 상황(Situation de l'écrivain en 1947)」 in 『문학이란 무엇인가?(Qu'est-ce que la littérature?)』 Gallimard, 1948, 237p.

다. 다시 말해서 정신의 효력 말이다. — 알베르 카뮈(Albert Camus), 『시지프 신화(Le mythe de Sisyphe)』, folio essais, 2013, 122p.

어린 왕자는 장미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의문을 품고 지구를 떠나고자 결심한다. 그리고 지구에서 만난 여우 덕분에 어린 왕자는 타인에 대한 책임에서 비롯하는 존재의 본질을 이해한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행동은 인간의 선택을 나타낸다. 행동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떠안는다. 일단 책임을 방기하면 삶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행동하는 사람이 스스로 지는 책임을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장미에 대한 책임감에 어린 왕자는 자기 행성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책임이 우리를 존재하게 한다. 따라서 자신의 책임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며, 선택의 자유에 의해 인간은 자신을 규정하고 무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런데 애착이란 자유로운 구속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선택과 관련된 의도의 한 유형이다. 어린 왕자가 깨달은 것 역시 자신의 장미에 대한 애착은 결국은 자신이 장미에 대해 책임지는 것과 동일한 선택이라는 것이었다.

여우는 책임질 줄 아는 선택에 인간의 참다운 자질이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인간의 위대함은 스스로 책임을 느끼는 데 있다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 자신의 일에 대해, 동료 이웃들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그들의 고통이나 희열을 자신이 품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정체성이다. 프랑스 실존주의의 기본 정신 가운데 하나 역시 인간은 그 행위 전체로 규정되며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데 있다. 어떠한 신성도 삶에 부여되지 않았다. 부조리한 세상에 던져진 인간은 불안 속에 자신의 행위를 책임져야 하기에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으며 언제나 선택하도록 선고받은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부조리와 무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자유로운 선택에 있다. 습득한 지식으로서의 이론적 교의만으로 자신의 삶을 이룰 수는 없다. 진정한 삶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자신을 길들이는 것이다. 『어린 왕자』에서의 자유 역시 타인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선택의 자유이다. 하이데거의 경우, 실존이 무로부터 떼어져 나온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무의 상태에서는 인간이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의 상태에 있던 어린 왕자는 장미가 나타나자 장미를 돌보겠다고 결심한다. 그것이 어린 왕자의 ‘첫 번째 자유로운 선택’이다. 많은 풀과 키 작은 나무들 가운데서 우연히 눈에 띈 장미를 선택한 것은 누구의 지시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다. 어린 왕자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자유로운 선택’은 자신이 마음에 품었던 질문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그는 사랑하는 줄 모르면서 사랑한 장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식과 일거리와 친구를 찾아 아무 문제가 없던 고향을 떠난다. 이 역시 스스로 정한 길이었다. ‘세 번째 자유로운 선택’은 죽음을 무릅쓰고 선택한 귀환이다. 장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기 별로 돌아가는 어린 왕자를 만류하는 비행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린 왕자는 자신이 장미를 길들였음을 알고 그를 돌보려 귀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선택은 책임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며, 책임은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이루어감이며, 늘 선택 속에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적 자유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서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영원히 사랑의 선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어린 왕자의 사랑의 선택이 뱀과 여우와의 관계 맺음 속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친구를 찾아 나선 고독한 어린 왕자의 여행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어떤 지역, 시대, 사회에 속해 있어 무한히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없으며 자기가 속한 시대와 공간이 선택한 것만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집단이 배

제한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우리의 자유와 자율성이 무척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율성의 제한이 우리를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끌기도 한다. 그러므로 실존주의는 한 시대에 국한되는 사유나 담론이 지닌 한계를 파헤치는 존재론적 사유 방식과 연구 태도 즉 관계 맺음을 위한 사유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탈자아의 어린 왕자 여행

『어린 왕자』에서 뱀은 여우와 달리 어린 왕자가 허물을 벗고 자기를 벗어나게 해주는 지혜의 화신이다. 인간을 피해 사막에 숨어 사는 여우는 교활하고 간악한 동물이 아니라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지성의 소유자이다. 어린 왕자의 마음을 일깨우는 여우는 냉철한 지성을 지녔으나 정작 지성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 지리학자의 말을 믿고 지구를 찾은 어린 왕자가 처음 만난 것은 뱀이었다. 달빛 고리처럼 모래 속에서 꿈틀거리는 뱀을 보고 영겁걸에 뱀과 인사를 나눈 어린 왕자는 다정히 대화를 나누나 사막의 돌 위에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 보며 말한다.

별들이 환히 빛나는 건 언젠가 저마다 자기별을 다시 찾아낼 수 있게 하려는 건 아닌지 궁금해. 내 별을 바라봐. 바로 우리 위에 있어…그런데 참 멀기도 하군! — 『어린 왕자』 제17장 부분

자신을 사랑해준 장미를 찾아 소행성 B612호로 돌아가고픈 마음에서 우러나온 어린 왕자의 진정 어린 독백이었다. 하지만 그는 희한하고 가느다랗게 생긴 뱀에게서 아무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고 여겼다. 어린 왕자의 이런 속셈을 간파한 뱀은 어린 왕자 발목을 금팔찌처럼 휘감으며 날카로운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암시하는 답을 준다. 자기는 왕의 손가락보다 강하고 지혜롭기에 어린 왕자를 누구보다 더 멀리 데려갈 수 있다고. 하지만 자신을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나온 땅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그런데 순진하고 다른 별에서 온 어린 왕자인 만큼 고향이 그리우면 언제고 그를 귀환시켜 주겠다고.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고 스스로 수수께끼를 모두 풀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뱀. 생텍스가 『어린 왕자』의 서두에서 소개한 자신의 그림 1호의 모자로 보이는 그림 속 코끼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대한 폭력 독일 나치를 그린 것이며, 자기보다 덩치가 큰 포악한 코끼리를 통째로 삼키는 뱀은 평화의 상징이다. 허물을 벗지 못한 뱀은 죽은 뱀이라는 니체의 말과 같이 뱀은 어린 왕자에게 허물 벗는 법 즉 자신을 벗어나는 약을 선물한다. 하지만 이 허물벗기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결국, 어린 왕자는 자신의 죽음을 염려하는 비행사에게 “몸이란 벗어젖힌 낡은 껍데기 같은 거야. 낡은 껍데기가 슬플 건 없잖아…” 라고 위로한다. 뱀은 어린 왕자에게 자기희생을 선택하게 한 것인데 그 결과 어린 왕자는 예전의 자아로부터 벗어난다.

보들레르가 사랑으로 표현한 활과 화살의 관계처럼 사랑이란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을 버림으로써 그 대상과 융화되려는 욕구이다.³⁾ 장미와 어린 왕자는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받았지만 결국 그 고통 속에서 자아 초월의 의미를 깨닫고 서로에게 자신을 열어 간다. 어린 왕자의 여행은 이렇게 자기 초월을 통한 사랑의 구도 여행기 성격을 드러내며

3) Charles Baudelaire, *Fusées I* in *Journaux Intimes, Œuvres complètes I*, texte établi, présenté et annoté par Claude Pichois,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75.

또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 이번에는 지구로 떨어질 때보다 더욱 힘든 귀환의 여행이다.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어려운 여행에서 살아남아 장미와 재회하고 그녀를 위해 별을 지키겠다는 기대 속에 진행되는, 관습화된 나로부터 벗어나는 탈자아의 여행인 것이다.

『어린 왕자』, 실존철학의 대중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실존철학 관점에서 생텍스의 작품 속 직업을 통해 드러나는 직업의 실존적 의미를 이론화하였다. 카뮈 역시 생텍스의 인간관계에 관해 공감하고 그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미루어 그에게 경도되어 있었던 같다. 나아가 생텍스는 동시대 사상이 바타유가 강조한 “강렬한 문학과 신비 체험의 강렬함”⁴⁾이 가리키는 지점으로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소통하는 지점을 재현하고 있다. 야간 비행에서 만나는 별들과 사막의 여우 페넥크를 통해 체험한 존재의 신비가 생텍스의 문학과 소통하는 지점에서 신비로운 우화 『어린 왕자』가 탄생한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탐사 비행, 예기치 못한 낯선 존재와의 우정, 길들임의 깨달음과 책임을 다루고 있는 『어린 왕자』는 등장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직업의 한계성 곧 개인과 사회의 접점으로서의 일의 한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는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이데거가 생텍스의 『어린 왕자』를 20세기에 쓰인 위대한 실존주의 저술 가운데 한 권으로 추천한 것은 그만큼 실존철학의 의의를 대중화 한 데 대한 찬사의 표현이며, 난해한 존재론 용어들을 일상용어와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데 대한 감사의 표현일 것이다. 더구나 독일 나치 정권에 부역했다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던 하이데거로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장렬히 산화한 전투비행사가 쓴 우화를 마주하고 철학의 의미를 새롭게 재발견했는지도 모른다. 생텍스의 작가로서의 탄생은 비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간관계라는 진정한 사치를 볼 줄 알게 된 비행사 직업의 재발견이듯이, 『어린 왕자』 같은 대중화된 작품을 통해 문학 이론을 형이상학적으로 대중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더욱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열어준 데 대해 생텍스에게 독자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4) 조르주 바타유(Georges Bataille), 『문학과 악(La littérature et le mal)』, 『Œuvres Complètes』 IX, Gallimard, 1979. 186p.